



삼장법사

CEO 삼장법사에게 배우는 인간경영

중국 4대 기서중 하나인 <서유기>가 조직과 그 구성원 간의 관계를 다룬 조직 경영학 책이라고 한다면 과연 독자들은 이 주장에 얼마나 동의할까?

<서유기>는 원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종교 속어와 상징적이고 심오한 의미가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요괴를 물리치는 과정만 기억할 뿐,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정한 가치와 함축적 의미는 잊어 버렸다. 따라서 구속받지 않는 개성과 능력, 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항적 기질을 지닌 손오공이 오랫동안 아이들의 우상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삼장법사처럼 인재를 경영하라>에서의 손오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다.

천궁을 쏘대발로 만들고 오행산과 험한 서역 여정의 고통을 견디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조직의 성공을 실현하는 손오공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듯 손오공과 다른 주인공들이 서역 여정중에 만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불경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현대 조직사회의 구성원들이 겪는 갈등과 고난, 성공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네 사람을 아주 중요한 팀워크를 지닌 그룹이라고 소개한다.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이 네 가지 인간 군상을 모두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에게 CEO적인 삼장법사는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절대적인 선과 풍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신중한 사고와 결출한 재기까지 겸비한 인재중의 인재다. 지은이는 삼장법사가 이렇게 엄격하고 신중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그를 가장 이상적인 대업의 전수자로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삼장법사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손오공을 비롯해 다른 구성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에게 불교의 관리학인 '팔정도'를 전수받았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삼장법사의 단점은 마음은 착하지만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못하고 세상일에 어둡다고 지은이는 지적한다. 또한 손오공이 세 번에 걸친 백골 요괴를 처치할 때 삼

장법사는 매번 자신의 철학만 늘어놓기에 바빴지 한번도 화를 억누르고 손오공과 의견을 교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화내며 손오공을 내치려 하는 바람에 결국 조직 전체의 역량만 크게 훼손했다. 여기서 지은이의 충고는 시작된다. 삼장법사처럼 한 조직의 구성원과 관리자도 때로는 백골요괴와 같은 마수에 빠져 시비를 가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삼장법사의 잘못된 요괴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내에 효과적인 의사 전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는 손오공과 우마왕의 아들인 홍해아에 대한 대결이 나오는데 손오공이 진압에 실패한 걸 결국 관세음보살이 골복시킨다는 내용이 나온다. 관세음보살의 승리 비법은 홍해아의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인 것에 있다. 여기서 지은이는 자아 관리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주 불량한 약자라고 치부한다.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과 조직, 그리고 대자연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스파트너의 생각을 관리하라 △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라 △ 프로일수록 조직의 규율을 엄수하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대의 관계를 수립하라 △마음속에 포용이라는 방을 지어라 등 <서유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분석해 사람을 경영하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인재경영술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교훈을 얘기하자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개인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소 딱딱할 것 같은 교훈적인 내용을 <서유기>라는 고전 속에서 발췌해 쉽고도 재미있게 풀어낸 것은 이 책의 큰 장점이다. 그러면서도 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화두를 놓치지 않고 풀고 가는 탄탄한 구성은 일반 독자들은 물론 전문 경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현대 직장인들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부담 없이 읽으며 조직경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강석진 회장(현 CEO 컨설팅그룹)의 추천사를 굳이 들지 않아도 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의욕과 열의가 넘치고 행동이 앞서는 스티파일로 묘사된 손오공



삼장법사처럼 인재를 경영하라
청천이 지음 | 한민영 옮김
랜덤하우스중앙 | 1만2천원

'서유기' 현대 시각으로 분석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인재 경영술 제시



천년의 그림여행
스테파노 추피 지음
서현주 · 이화진 · 주은정 옮김
예경 펴냄 | 1만9천8백원

올해 들어 특히 미술산내에서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편집과 인쇄, 화가나 작품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지난 1000년의 미술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책은 중세 유럽 로마네스크 프레스코에서 현대 뉴욕의 낙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0년간 제작된 위대한 작품들을 순례하고 있다. 순례를 하다보면 300여 명의 화가가 그린 800여 점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서양화 역사에서 가장 흔히, 혹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모든 작품이 이 책에 실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작, 화가, 도시, 예술 운동 등 하나하나를 주제로 삼아 그에 대한 간략하고 명쾌한 설명을 큼직한 도판과 함께 곁들여 배치했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 '고야' '피카소' 등 화가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장도 있지만, '위대한 프레스코의 시대' '다다에서 초현실주의로' 같은 미술사조, '솔로몬 왕과 시바의 여왕' '폴밭 위의 점심'처럼 미술작품이 제목으로 나온 장도 있다.

서양미술사 1000년 한눈에

명화에 대한 상식의 허와 실을 드러내면서 미술 작품에 얽힌 일화와 미술사적 의미를 담은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다. 르네상스 초기 회화의 대표작인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결혼식 장면을 담고 있다. 신혼부부의 낭만적 사랑을 담은 그림인 듯하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 그림 속의 신랑은 60대의 남자이고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젊은 유부녀를 납치해 겁탈한 뒤 결혼식을 올려서 정식 정부로 삼았다고 한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면, 그림 속의 모델이 결혼과 출산을 거처며 살아 쪼그라들고 사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모나리자는 그림 밖으로 빛을 내뿜으면서 신비감을 더하고, 그 배경화의 풍부한 분위기는 비오는 날에 빛이 가장 아름답다는 다빈치의 생각을 반영한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아비뇰의 아가씨들'은 프랑스의 아비뇰과는 전혀 상관 없는 그림이다. 피카소가 청소년 시절에 자주 들락거렸던 바르셀로나의 아비뇰 거리의 매춘부들을 그린 작품이다. 원래 피카소는 아가씨 외에도 한복판에 선 원 한 명과 해골을 든 의과대학생을 나란히 배치했다. 이 그림에서 해골은 악덕, 섹스, 죽음의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카소는 아가씨들만 그린 채 작업을 끝냈다.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그림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 알기 쉬운 그림을 조금 더 유익적으로 가깝게 다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책이라 확신한다.

또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100명 이상 화가들의 생활연대를 색띠로 표시한 권말 부록도 애호가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다.

■정준성(문학고미술교사)

4·8 봉축카드·생일카드

비단점등 33289호 제50831호
상용신안특허 의장등록
값 2,700원(100개 이상 주문시)

4·8 봉축카드



생일카드



카드내지

16절
•카드 100매 이상 단가 500원
•카드 500매 이상 단가 400원
•카드 1,000매 이상 단가 300원
•봉투, 내지 인쇄포함

프린트용 칼라인쇄지

A4 (80P모조)
값 10,000원(500매)

동진기획 홈페이지의 상담문의(홈페이지 상담우측)에 가시면 카드를 크게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동진기획

Since 1975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8888(대), 515-2988
(051)555-1087, 508-9377~9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 불교서적 • 불교카렌다 • 주문카렌다 • 불교용품
• 연등 • 4·8카드 • 생일카드 • 사찰인쇄전문

E-mail: tunhwang@yahoo.co.kr
www.tunhwang.com www.dongjin.biz www.동진기획.com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산, 서역남로 대장정 32일

티베트 수미산 순례는 고행의 길이며 자기 성찰의 길입니다. 이번 순례는 티베트의 라사에서 수미산으로 그리고 곤륜산을 넘어 중국의 타크라마칸 사막을 지납니다. 이어서 실크로드 상의 서역남로의 길을 따라 호탄, 니야, 미란의 고대유적을 따라서 둔황석굴에 까지 이르는 대장정으로 이와 같은 대장정은 한 마음 쉬고 가야하는 수행의 여정일 것입니다. 티베트와 중국의 대륙을 누비는 수행의 길에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 : 2005년 7월 4일 - 8월 4일 (32일간)
- 일 정 : 성도-라사-장체-시기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알리-도마-다홀리탄-마자르-예청-호탄-민풍-체르첸-차르크리크-루오지양-하루고-둔황

• 안내 : 이상원 011-352-3321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수미산 여행은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수미산여행은 수미산을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